

제주사회복지신문

>2019년 1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35호

“희망의 福돼지,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돼지띠 사회복지인 8인의 희망이야기

기해년을 맞아 제주도내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근무자와 자원봉사자들 중 돼지띠 여러분의 희망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 양복자씨(1959년생)=사회복지현장에는 크고 작은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홍태욱씨(1971년생)=매년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적인 활동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산(多産)의 상징인 돼지띠 해에는 더욱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회원 가입과 왕성한 활동이 이뤄지고, 더 많은 후원금이 모여지는 2019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 한희정씨(1971년생)=황금돼지해를 맞아 많은 분들 가슴 속에 희망의 복돼지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연말에는 ‘다사다난’ (多事多難)이 아닌 ‘다사다락’ (多事多樂)한 해였다며 다함께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일배움터 돼지띠 직원들=



▲ 돼지띠 사회복지가족들이 희망의 복돼지를 들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승협(사회복지무요원), 이미정(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장), 한희정(아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아름(일배움터 카페사업팀장), 홍진석(일배움터카페사업팀 바리스타), 양복자(자원봉사자), 이옥(한마음병원 원무과장), 홍태욱(자원봉사자)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일배움터 돼지띠 직원들이 인사드립니다.

청년장애인의 평범한 삶을 디자인하는 일배움터는 꽃을 키우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곳이 아니라 장애인들

돼지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강승협씨(1995년생)=뉴스를 보다보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 2019년에는 건강해야 돼지~ 사랑해야 돼지~ 행복해야 돼지~

2019년 황금돼지의 해에는 모두가 즐거운 마음, 긍정의 기운으로 희망과 행복을 향해서 함께 달려 나가는 뜻

▲ 이 옥씨(1971년생)=의료와 복지의 연계 활성화가 이루어 지길 기대하며 따뜻하고 건강한 삶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온기 가득한 긍정의 한 해 소망 자원봉사자 활동여건 개선 기대

고용 유지하기 위해 꽃을 키우는 현장입니다.

청년발달장애인이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평범한 삶이 일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꿈을 심어주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미소가 가득한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사회복지 현장에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 이미정씨(1971년생)=여러

깊은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에 바람이 불습니다.

기분 좋은 바람, ‘이웃의 바람’ 여러분 모두의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는 2019년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면소개

■ 신년메시지 2면
원 희 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 석 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고 치 환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

■ 신년메시지 3면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신년사

■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기고

■ 사회복지소식 7면
변영호씨 제주자원봉사대상 영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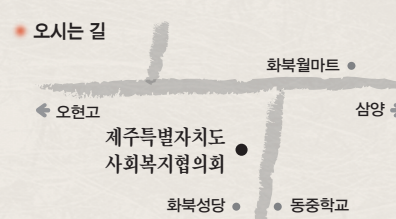


2019 기해년(己亥年)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 초대합니다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도내 각계 인사와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를 개최 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9. 1. 15 (화) 11:00~13:00
- 장소 : 본회 회관(2층) 삼다수홀
- 내용 : 새해인사말씀 /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
참가자 교례 / 경품추첨 / 오찬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오시는 길



화북월마트 • 삼양 • 오현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 화북성당 • 동중학교



제주사회 따뜻한 복지 다짐하는 새해 메시지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세심하게 펼치겠습니다”



원 희 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정과 사명으로 소임을 다하시는 사회복지인 여러분, 올 한 해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과거 제주는 가장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우리 도민들이 불굴의 의지로 도전하고 노력했기에 이제는 대한민국과 세계가 주목하는 '보물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통과 희생을 견디며 도민

스스로 땀 흘려 거둔 결실입니다.

최근 수년 간 제주는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 성장둔화가 우려되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일자리 구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위축되어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복지서비스는 더욱 절실하고 중요해집

니다. 사회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도록 제주도정은 더욱 세심하게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은 그동안 복지정책 내실화에 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제주도의 2019년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1.1%를 차지해 역대 최대 비중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 추진하

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분들에게 시의적절한 도움이 제공되도록 복지전달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정은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이고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지사회 커뮤니티케어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김 태 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장

존경하는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금돼지의 해,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보람찬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열정을 쏟아주신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모두의 노

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입니다. 정부도 포용적 복지시대, 즉 평소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를 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역복지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다.

더욱이 올해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

다. 상대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실업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가 폭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석 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사회복지인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 아이 한 명, 한 명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는 따뜻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사회복지인 여러분

을 비롯한 도민 사회의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 제주교육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질문이 있는 교실'의 기반을 확고히 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에

도 '교육복지특별도, 제주'를 비전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과 장애학생,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데도 더욱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아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올해도 사회복지인 여러분께서 아이들과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2019년 기해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연대와 협력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고 치 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회복지가족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포용적 복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복지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와 사회복지서비스 도입 등이 그 변화의 방

향을 가늠케 합니다. 사회복지지는 결국 보편성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복지의 모델을 갖춰나갈 때 주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복지가 완성될 것입니다. 기해년 새해는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주복지의 방향을 어떻게 잡

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민·관의 유기적 협력이 더욱 중요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절실해 지는 2019년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사회복지계 대표기관으로서 담당해야 할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

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소임은 연대와 협력의 구도를 잡고 소통과 참여라는 물감으로 제주복지의 큰 그림을 그려내는 일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신년사

새해를 맞아 제주지역 직능별 사회복지 단체장들의 신년사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싣는다<편집자주>

임말시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회장



존경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표 이사장님과 사회복지시설 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에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탈시설화의 가속화로 사회복지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

희 협회에서는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사회복지서비스원 출범에 대응한 지역협회와의 소통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둘째, 타 법인시설 견학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복지사업 및 프로그램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도내 여러 단체장들과도 협력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보람을 느끼며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꿈과 희망이 영그는 기해년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 두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협회장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사업이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우도, 추자도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수요조사, 문화복지공연, 자연환경 정화·정비 활동, 재가복지·의료·주거환경개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각 섬의 마을 자생단체와 사회복지관협회 회원기관, 제주지역 30여

개 이상의 공공·민간단체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자생단체가 스스로 주민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기관이 게이트 역할을 하며, 제주지역 공공·민간단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새해 우리 협회에서는 지금까지 실시했던 사업을 평가하여 보다 질 높은 ‘이동복지관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에도 힘쓸 것이다.

끝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실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부 재 옥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협회장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해 오신 재가노인복지협회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우리 사회복지환경을 시장 속으로 내몰아 ‘도전과 응전’의 상황에 직면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요구되어지면 변화를 인식하

고 대응하여 시설의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6월 제주에서는 제25회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를 통해 집결될 역량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발전적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주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모두 고령사회의 안전망이자 수호천사입니다.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요양문화 선진화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2015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뜻하는 일을 이루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 기원합니다.

신년축시

너와 나 같지 않음에

시인 한영조

나뉘려는 돌멩이
숲속 나무들도
크기나 생김새
똑같은 것 하나 없애
다르고 또 다르게

자라나는 어린이
다 큰 어른들도
하는 생각 하는 일
똑같은 것 하나 없애
다르고 또 다르게

어제 오늘 내일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이런 일 저런 일
똑같은 것 하나 없애
다르고 또 다르게

너와 나 같지 않음에
서로 어긋남이 있고
다툼이 있고
돌이켜 반성하고
정겹게 화해하고

너와 나 같지 않음에
사회복지 또한
기해년 새해에도
서로 사랑 나누며
따뜻한 사회
뉘어 갈 수 있으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12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축산물112kg ▲유진상사=오투기식품1,428개 ▲(주)쿵스토어 제주이도점=제빵109봉 ▲나눔베이커리=제빵81봉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127모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40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200개 ▲포아식빵=식빵292봉 ▲모양=빵207개 ▲미인빵=빵49봉 ▲비엔누아즈=빵261봉 ▲클럽가메론제주지역회원=라면57박스 ▲이든이네=건어물27kg ▲신술생남=베이킹소다,식용유 ▲정필이오편=떡13개 ▲제주보리촌=보리빵637개 ▲참새방앗간=떡538개 ▲코코호두=호두과자77묶음 ▲파파무베이커리=빵80봉 ▲존샘봉사회=김치500kg

•기탁문의: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8년 11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 가 결 연 후 원	2,520,000	270,000
난치병환아후원	40,000	0
자 원 봉 사 후 원	375,000	375,000
복 지 사 업 후 원	1,025,000	1,357,920
푸드마켓 후원	3,101,163	326,720

2019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주요 사업 소개

1월	• 신년인사회 • 협의회 소속 4개 봉사회 정기총회	7월	• 사회복지중사자 Refresh프로그램 시행(10월)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요원 보수교육 • 기부식품제공사업 성과 보고서 발간
2월	• 정기감사, 정기이사회, 정기총회 • 사례관리전문가양성과정(심화과정)개강 • 밀반찬지원가구 전수조사 • 자원봉사연합회 대의원 총회	9월	•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2019제주나눔대축제 • 2019사회복지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 제주사회복지사(史) 20대 발취취 선정
3월	• 사회복지시설 우수 종사자 해외연수 • 제주도민 사회복지배움터 개강 • 사회복지가족상담사 양성과정 개강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요원 신규교육 (9·11월), 보수교육(10·12월) •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자 회의(8·12월) • 광역푸드뱅크 운영위원회 회의(8·12월)	10월	• 사회복지자원봉사 우수관리센터 인증요원 국내연수 • 기초푸드뱅크·마켓 지도점검
4월	• 사회복지시설 신입직원 아카데미 개강 • 제주지역 권역별 사례관리컨퍼런스 (6·8·10월) • 자원봉사자 국내연수	12월	• 임시총회 •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 사회복지자원봉사 가이드북 발간
5월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교육 (7·10·12월) • 제주지역복지 최고경영자 아카데미 개강 • 지역사회봉사단 간담회 • 기부식품제공 우수 사업장 견학 • 기초푸드뱅크·마켓 실무자교육(10월)	격월	사회공헌 네트워크 정례모임(2월부터 짝수달), 사회공헌 아카데미(3월부터 홀수달)
6월	• 사례관리전문가양성과정(기초과정)개강 • 사회복지시설·단체편람 발간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 지도점검 • 자원봉사자 교육(10월)	연중	사회복지신문발행, 사회복지정보제공사업, 저소득가정 밀반찬지원사업·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역사회봉사단 운영,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제주사회공헌네트워크 운영, 사회복지인권사랑방 운영, 법률상담터 운영, 복지용 차량차량 대여

정보제공·자원연계 기능 강화

41개 사업추진... 지역발전 디딤돌 역할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에서는 2019년 사업추진 방향을 정보제공과 자원연계 기능 강화에 두고 총41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안정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제주 지역 사회복지시설·단체의 각종 운영현황 자료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수집·관리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가공·분석하여 제주지역 사회복지총량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용이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둘째, 기업 등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체계 정착을 도모한다. 지난 해 출범한 '제주사회공헌네트워크'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사업 추진으로 기업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성과를 도출해 기업 사회공헌 모델을 선보인다.

또한, 기업 등의 사회공헌을 위한 자원들을 사회 복지현장에 연계하여 사

회복지역사 속 20대 발취 선정으로 제주사회복지역사 정립에 기여한다.

그동안 제주사회복지역사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1호 시설 선정, 원로 인터뷰 자료 수집 등

사회복지시설정보 관리시스템 안정화
기업사회공헌·나눔문화 관심제고에 노력

회적 가치를 키우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셋째, 식품기부사업 성과 확인 및 발전방향 제시로 나눔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키워나간다. 광역푸드뱅크 운영 15년, 푸드마켓 1호점 운영 10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된 식품나눔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냉정한 평가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사회복지의 날 제정 20주년을 맞아 제주

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더해 20가지 역사적 기록을 선정함으로써 제주사회복지역사 바로 알기 문화 조성에 나선다.

아울러,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옹호를 위해 법률상담터 사업과 연계한 '사회복지 인권 사랑방'운영으로 인권관련 법률상담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방문 인권교육, 종사자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등을 현장의 욕구에 맞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소식

제주지역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실무자 네트워크 모임인 '제주사회공헌네트워크'가 지난 해 4월 출범했다. 이에 참여 기

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내용들을 지면을 통해 알림으로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디케이서비스 장관상 수상

디케이서비스(대표 김영채)는 지난달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18년 기업 사회공헌 관계자 나눔 감사행사에서 '함께건너요 노랑깃발'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가 주관한 '2018년 사회공헌 유공자 및 우수프로

그램'상은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등 3팀, 우수 프로그램 5개를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디케이서비스의 '함께건너요 노랑깃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주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 노랑깃발을 설치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의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2019년도 운영계획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와 제주사회공헌네트워크는 지난달 13일 로니로티 제주점에서

'제주 사회공헌 네트워크'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운영경과 및 성과와 2019년도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정옥)는 지난달 17일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378명이 응모했으며 이중 최종 7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상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김현서 학생이 차지했다. 김현서 학생은 발달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필요성을 간결하면서도 호소력 있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봉식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편집기자 : 김승지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 소/식/마/당

(무순)

“나눔상자로 사랑 더해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와 제주농협 OB봉사단(회장 현창일)은 지난달 21일 협의회 바람소리홀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나눔상자 만들기’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자 제주농협 OB봉사단과 협의회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나눔상자에는 쌀, 소면, 참치캔, 라면, 간장, 참기름 등 8가지 식료품이 담겼다. 상자는 도내 푸드뱅크 마켓을 통해 긴급지원 대상인 500가구에 전달된다.

이날 행사에 앞서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업무 협약식을 갖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지원키로 했다.

후원금 기탁 훈훈



새암세무회계컨설팅(대표 임주현)은 지난달 7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시설장 조인석)를 방문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관심을 갖고 직업재활 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써달라며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어울림터 관계자는 “후원금을 된장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다”며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그린 세상 프로그램 실시



증장애인이양시설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지난달 7일 아침미소농장에서 이용 장애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내가 그린(Green) 세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 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과장 고보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아침미소농장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활동을 하는 등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르신 삶의 질 향상 도모



평안재가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박천광)는 매월 낮 동안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의 활력을 위해 2018년 특화 및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으로 ‘게꿀게임과 보치아게임’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타시설(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어르신들과 함께 이뤄졌으며 지난달에는 연말대회를 열고 푸짐한 상품을 제공했다.

미술활동 작품 전시회 진행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문정신)는 최근 법인내 실외스포츠헤일에서 이용 장애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미술&아트플라워 ‘내 마음 속 세상’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2018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아트플라워’와 2018 다음카카오 지원사업 ‘내 마음 속 세상’ 미술활동 프로그램 중 이용 장애인들이 만든 여러 작품을 모아 마련했다.

하반기 사업평가회 개최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달 14일 건입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미숙)와 건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재일)가 함께하는 인정이 넘치는 만덕마을 만들기 하반기 생신잔치와 사업평가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에서 200kg 쌀 후원과 돌하르방예술단과 일도이동적십자봉사단의 재능기부가 더해졌다.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 운영



가롤로의집(원장 서영숙)은 지난 2~11월 거주시설 중증 지적장애인의 심리정서안정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내 안의 나를 찾아서’를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태권도활동, 음악활동, 켈트활동, 도예활동이 운영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태권도활동은 평소 태권도와 운동에 관심이 있었던 이용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청소년자원봉사자 장학금 전달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지난달 7일 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도내 우수 청소년자원봉사자 8명을 선정해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김봉한 관장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사히 여기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청소년 장학 사업을 진행해 청소년 미래인재 육성사업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 행복 코칭 아카데미 진행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지난 11월 24일 복지관 1층 우리마루에서 행복설계사업에 참여하는 19가정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가족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1부에서는 사업 추진경과 및 성과를 공유하고 2부에서는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강사 초청을 통해 우리 가족 행복 코칭 등을 주제로 아카데미가 진행됐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은 최근 요양원에서 장애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내 중증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배움의 행복더하기II’를 진행했다.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토탈공예, DIY가구교실, 미술교실, 요리교실, 음악놀이교실 5개 강좌로 운영됐다.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제주수놓음지역자활센터(센터장 고은택)는 최근 도내 일대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 ‘나의 편과 함께 하는 1박2일’을 통해 가족 액자 만들기, 아침 가족 산책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아이와 함께 가까운 곳에 놀러가는 것도 마음먹기 어려운데 1박2일 여행을 통해 여행 사진 액자도 받고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시론

진정한 양심과 국방의 의무

그간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무죄판결이 엇갈리게 이어져왔다. 대법원은 종교 등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처벌해 온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혔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인지 심사를 통해 확인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줘야 된다.”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라고 판결했다. 반면, 소수의견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의 진정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로 병역의무 논란은 더욱 분분해졌다.

종교적 신념의 병역기피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상념이 혼란스럽다. 양심을 내세운 병역기피로 국방의 의무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

다. 특정 종교에 의한 개인의 신념적 행위가 과연 양심적인가. 법률용어로 쓰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병역기피나 신념적 병역기피가 맞다.

특정종교의 교리를 국민의 의무에 우선하는 것 같아 좀 의아하다.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쟁은 유감이다. 법이 만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사회가 평등사회, 성숙한 민주사회이다.

자청하여 현역복무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헌법에 정한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 것이다. 병역기피자가 종교적 교리(敎理)인 평화를 위해 집종을 거부한다고 하지만, 군대에 가는 사람도 평화를 사랑한다. 조국의 평화를 지키려고 총을 드는 것이다.

내면의 양심을 표출시켜, 양심의 진실성과 깊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어려운 과제는 행정부 몫이 되었다. 국민의 의무이행을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비취 판단할 기준을 잘 정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논쟁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체복무는 복무영역을 교정시설에 합숙으로 하고, 기간은 현역 육군의 두 배인 36개월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를 초과하면 처벌을 위한 제도가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립하는 분단현실 직시해야

과연 1.5배 주장이 합당한가. 우리나라는 징병제로 채택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정부는 현역군인의 복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으로 안다. 대립하는 분단 현실의 안보를 직시한 현명한 결정이 요구된다.



문익순
수필가

기고

기초연금 어르신 통신요금 할인 받는 법



고연정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감면 내용으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중 이미 할인된 요금에 적용된 알뜰폰 사용자를 제외하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료의 50%(최대 11,000원)까지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바로 전

화연결이 되도록 했으나 아직도 정보 소외층인 어르신들은 감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이 이동통신 요금 할인받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방법이다.

둘째 휴대폰의 고객센터를 활용하는 방법, 셋째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넷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중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휴대폰의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대리점 방문 없이도 집에서 휴대폰으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눌러 고객센터 상담사가 연결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감면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지난 10월 한 달 간 관내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 경로당을 직접방문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내용 대해 홍보하고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고객센터를 통해 감면 신청을 해 드렸다.

그때 느낀 점은 어르신들이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통신사마다 상담사와 연결 방법이 다르고 지역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번호를 해제해야 하는데 휴대폰 기능을 모르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마저도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직까지 감면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라며, 자녀분들도 일상에 바쁘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께 휴대폰 감면 신청을 해드리고 부모님께 작은 효도 한번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

칼럼

본색(本色)

사물엔 본디 빛깔이 있다. 그게 본색이다.

하늘·바다·산·들은 푸르다. 새 중에도 백조·해오라기는 희지만, 까마귀는 까맣다. 카멜레온처럼 자주 변하는 것도 있어 본색을 말하기란 쉽지 않다.

얼마 전 문학제에 참석하러 백양사로 가는 길이었다. 차가 노선을 벗어나 내장산으로 향한다. 뜻밖이다. 정 많은 광주의 K 시인이 제주에서 올라간 나를 공항으로 맞더니, 단풍까지 챙기려는 의중이다. 백양산과 내장산 그러니까 정읍과 고창. 한 줄기로 흐르는 두 곳 단풍을 한꺼번에 섭렵하는 호사를 누렸다.

철이 기울어 단풍도 거지반 퇴락해 있었다. 그래도 능선을 내려 길옆에 서 있는 애기단풍이 활활 타올라 신통했다. K 시인이 단풍에 흠뻑 내게 한마디 한다.

“저 단풍 빛이 나무의 본색입니다. 초록은 단풍을 준비해 온 것이고요.”

인간다움의 본색은 그 사람의 본연

그 말에 노루잠 물리듯 의식이 깨어난다. 잎에 있는 엷록소나 화청소가 늦가을이 되면 붉게 또는 노랗게 단풍으로 달아오르는 색, 저게 나무의 본색이란다. 푸름에 물릴 만큼 물려 임계에 닿으면 저리 고운 본색을 내놓는가. 미당 시인도 ‘초록이 지쳐서 단풍이라 했거늘.

그렇다. 저리 활활 불붙는 빛깔이니, 본색인게 맞다. 칼칼한 가을 햇살과 한기 서린 갈바람과 새벽에 내리는 무서리에 깨어난 저 빛깔, 나무의 본색이려니 했다.

나무의 본색이 단풍이면, 사람의 본색은 본성이다. 본색을 갖췄다 하면 본연의 모습을 찾았다 함이다. 흐트러진 매무새 고치고 어질러졌던 질서가 원상으로 복귀했다는 얘기다. 인간다움의 본색은 그 사람의 본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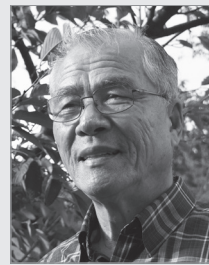
사람이 양심을 잃으면 바탕색인 본색을 버리게 되고 만다. 약한 자를 쥐어흔드는 갑질, 정치권의 이합집산도 본색이 변하는 것이다. 본색이 지워지면 퇴색한다. 사람은 본색일 때 아름답고 순정(純正)하나, 탈색하고 변색하면 칙칙해 추하다.

일이 다급해지니까 본색이 드러난다고 한다. 갑자기 내비치는 본색은 낯설어 당혹스럽다. 오래 쌓인 견고한 신뢰에 금이 가고 만다. 참 허망한 일이다.

마음이 떠나면 복원이 어렵다. 고쳐먹는다고 작정해도 이전으로 이가 잘 맞춰지지 않는다.

‘단풍을 나무의 본색이라’ 한 K 시인의 말이 올림으로 오더니,

마음속으로 파장이 일었다. 하나를 놓고 둘이 제 것이라 우기면 난감한 일이다. 한쪽이 본색을 숨긴 탓이다. 사람들은 본색을 알아 모여든다. 밝은 색 말이다.



김길웅
칼럼니스트

변명효씨 제주자원봉사대상 영예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연합회 등 우수상 수상



제주新보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가 주최·주관한 '2018년 제주자원봉사대상' 시상식이 지난달 22일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시상식에서는 변명효 제3회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자(한울간병회 회장)가 2018년 제주자원봉사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변 등재자는 한울간병봉사회를 결성해 도내 장애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을 방문해 식사, 목욕, 이미용, 세탁, 간병 등의 생활 지원, 물품 후원 등 나눔을 실천하

고 있다.

이어 기업부분 우수상에는 주식회사 KT&G 제주본부(대표 오영수)와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대표 고석만)이 차지했다.

KT&G는 독거노인 집수리 봉사, 요양원 시설지원 등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은 전 직원이 매월 기부에 참여하는 한편 행복나눔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단체·기관부분 우수상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인간적인 유대관계 형성과 지역사회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전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자원봉사연합회(대표 김홍철)와 수요자 맞춤형 봉사를 실현함으로써 여성자원봉사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대표 김애숙)가 수상했다.

개인부분에서는 제주도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고관용 제주한라대학교 교수와 적십자봉사원과 법사랑보호복지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 북한이탈주민정착도우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 있는 김대주씨가 선정됐다.

이밖에도 청소년 부문에 오영교, 김상우 학생이, 특별부분에 이알료나, 이미옥씨가 선정됐다.

희망나래 송년의 밤 행사 마련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이사장 최영열)는 지난달 14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임직원, 이용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네가지의 희망 출판기념회 및 문화예술 사업 보고대회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18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발달장애인의 꿈과 성장스토리, 열네가지의 희망'은 발달장애인 7명과 부모 7명의 꿈과 성장 모습을 생생히 기록해 냈다.

나눔으로 아름다운 사람들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 산하시설(제주양로원, 제주요양원, 제주노인복지센터)은 지난달 15일 아인피플호텔에서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을 초대해 '나눔으로 아름다운 사람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자원봉사활동 경과보고, 자원봉사자·후원자 표창, 후원금 전달식, 자원봉사자 사례발표 및 공연 등으로 꾸며지는 등 봉사자와 후원자 간의 화합의 시간으로 꾸며졌다.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진행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호)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는 지난달 10일 '한국친정엄마와 이주여성이 함께하는 김장나누기'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구좌읍나빌레라무용단 어머니들이 이주여성들에게 친정엄마가 되어 김치 담그는 방법을 가르치고 한국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2018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봉사활동 사례 발표

봉사활동으로 쌓인 추억 그리고 감사함



김 완 미
온누리봉사회

저는 초등학교 때 '수화'라는 단어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대학교 수화동아리에 들어가 행복한 마음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하며 봉사를 하고 졸업을 한 후에도 영지학교 방문을 하며

영지학교 친구들과 지내다가 결혼을 하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봉사는 뒷전이 되어 버렸고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직장에서 형숙선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온누리 봉사회에 들어가 2010년도부터 다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봉사를 하면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고 싶었는데 아이들은 엄마 마음과 달리 봉사하러 가는 날이면 싫다는 표현을 하면서 억지로 엄마와 함께 봉사하러 가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정신요양원 봉

사를 마치고 오는 길에 막내아들이 "엄마 오늘은 봉사를 하고 나니까 뿌듯한 마음이 들어"라고 속삭이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었답니다. 봉사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고, 봉사는 누구나 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책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다



김 윤 주
지역사회봉사단 아우름

아우름에서는 책 읽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인 '아우름'은 "책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등교 후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학부모'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

죠. 그러다 양로원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로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책을 들려드리는 거죠. 어른들에게 무슨 책이냐 싶었지만 생각보다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양로원에서 책을 읽은 지 1년이 지날 때 즈음,

저희는 영역을 좀 더 넓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간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책 읽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양로원 봉사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 모두 모두 자리에 앉아 앞에 계신 선생님만 바라보는 초롱초롱한 눈빛이란! 모두 성인이지만 어찌나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시는지, 정말 신나

게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흔히 봉사활동을 간다고 하면 정말 대단하다고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제가 대단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제가 훨씬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죠.

책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특별한 경험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열린 '2018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에서 봉사자들의 사례 발표 내용 중 일부를 2회에 걸쳐 실는다.<편집자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원 여러분



이연봉님, 부형중님, 송옥희님, 안근보님, 고승화님, 김금자님, 김순실님, 김순효님, 박영식님, 박정혜님, 부재옥님, 양광호님, 이흥기님, 양은심님, 휴완스님, 강정숙님, 고관용님, 고보선님, 김도영님, 김효철님, 문성은님, 석 건님, 양예홍님, 양은정님, 양창오님, 윤흥기님, 원석철님, 이귀경님, 윤보철님, 고두승님, 고경애님, 공성용님, 홍연숙님, 김경수님, 문정옥님, 양용희님, 고태준님, 안창준님, 고수희님, 임주리님, 이동한님, 서영숙님, 이승희님, 정영태님, 김미숙님, 박주희님, 유철호님, 이일형님, 이미정님, 김홍규님, 최은미님, 강정윤님, 김성율님, 김석추님, 고경희님, 양윤숙님, 강세현님, 허철훈님, 고영두님, 고정언님, 한형범님, 강정금님, 전영록님, 고경윤님, 강규진님, 양복실님, 김성진님, 고경남님, 박승석님, 오운자님, 임태봉님, 강동화님, 고추월님, 고태언님, 조성태님, 김여옥님, 김군택님, 함성중님, 한윤정님, 김수완님, 고영봉님, 김상현님, 고도현님, 강정민님, 김희현님, 박재천님, 양화규님, 박강란님, 고성도님, 오윤정님, 강석봉님, 부현철님, 홍태옥님, 김애경님, 강수영님

아가의집, 홍익아동복지센터, 제주모자원, 평안전문요양원, 성이시돌요양원, 서귀포시사랑원, 제남아동복지센터, 남제주요양원, 성요셉요양원, 제주 YMCA, 제주Y신용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춘강, 사회복지법인 삼인원, 제주시희망원, 무지개마을, 제주보육원, 제주양로원,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천사의집, 제주원광요양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유진, 평화의마을, 사회복지법인 삼다, 제주정신건강복지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제주장애인요양원, 은성종합사회복지관, 보은의집,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소망요양원, 사회복지법인 청수,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주사랑요양원, 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송죽원,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광원, 어울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애덕의집, 창암재활원,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가롤로의집, 사회복지법인 동광원, 세화요양원, 서귀포작은예수의집,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위미에덴요양원, 제주평화양로원, 예향원,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태고원, 일배움터,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성안노인복지센터, 제주시니어클럽, 사랑의집,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작은예수의집,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월드비전제주지부, 정혜재활원, 제일지역아동센터,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천전문요양원,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야곱노인복지센터,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일요양원, 제주케어하우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성지요양원,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춘강장애인근로센터, 효사랑, 우도샬롬소규모요양시설, 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귀포시지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제주글로벌센터, 국제가정문화원, 창암교육활동센터, 성안복지재단,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호요양원,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행복나눔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전원요양원, 자광원, 함덕지역아동센터, 주사랑소규모요양원, 성심요양원,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한국노인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가족사랑상담소, 한아름전문요양원, 미타요양원,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봉아름지역아동센터,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해주원,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동제주노인복지센터, 엘린,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달지역아동센터, 내친구가사는집 자미성,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뽀얏, 에코소랑, 디딤돌그룹홈, 마리아의집, 나눔요양원, 제주사라의집, 기로회요양원, 서부장애인복지센터, 행복한쉼터,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참좋은지역아동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성가정노인복지센터, 성자현, 가족사랑쉼터,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비전지역아동센터, 하소로지역아동센터, 사단법인굿네이버스제주지부, 제주몽생이그룹홈, 신흥지역아동센터, 예천노인전문요양원, 드림요양원,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 제주수눔음지역자활센터, 제주도농아복지관, 하나원, 여성의쉼터불턱, 보목지역아동센터, 김녕행복한지역아동센터, 동부종합사회복지관, 평안재가노인복지센터,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희망나래활동센터, 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한빛여성의쉼터,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원당요양원, 낭그늘요양원, 소망지역아동센터,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제광원소규모요양시설, 추자요양원, 탐라노인복지센터, 예담노인전문요양원, 다올요양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위미지역아동센터, 혼디사랑요양원, 실만한물가, 희망나래일터,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제주요양원, 사회복지법인 희엘, 생명의샘, 한국요양원, 예담재가복지센터, 굼꾸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명유원공동생활가정, 덕유원공동생활가정, 행복동지역자공동생활가정, 희망모아주간활동센터, 신례지역아동센터, LH행복꿈터삼화지역아동센터, 공생하우스,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색달노인복지센터,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한라요양원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진심어린 사랑과 적극적인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고 치 환 회장 및 임직원 일동